

쌀값 올랐지만 농가소득은 ‘제자리걸음’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작년 수매쌀 판매 통해 1조625억원 판매수익 거둬
민주당 의원 “쌀 유통이익, 농가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은 24일 최근 전복을 비롯한 전국 시중 쌀값이 크게 오르는 동안 농민보다는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가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승한 것을 비교하면 농민에게 소득이 큰 폭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 반면 정작 미곡종합처리장이 농가소득보다 수익을 창출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3개 농협 RPC가 2024년산 쌀을 매입해 올린 수익금은 1조625억원에 달한다.



30% 급등했음에도, 농민보다는 RPC가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간 구조다.

울적십자병원 6곳 중 4곳 일부 진료 중단 반복되는 공공의료 공백

민주당 의원, “공공의대 설립 필요”



올해 대한적십자사 산하 6곳 병원 중 4곳에서 전문의 퇴사와 구인난, 의료취약지 파견의사 진료 종료로 일부 진료가 중단되며 공공의료 공백이 반복됐다.

의료취약지 파견의사 진료 종료로 통영적십자병원 신경과는 2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휴진했으며, 거창적십자병원 정형외과는 9월부터 연봉 4억 2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아직 채용되지 않았다.

미래산업 육성·도민소통 강화 ‘속도’

도, 이번주 도정 주요 일정 발표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구축 협약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중심 열린 도정’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한층 더 힘차게 내딛는다.



김철태 전북자치도 대변인(사진)은 지난 24일 정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북도는 미래산업 기반 강화, 도민 소통 확대, 지역 화합 증진을 위한 주요 행사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사회 순창본부’ 출범

농협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순창군이 지난 24일 기본사회 순창본부 출범과 함께 공모사업 선정을 자축하는 행사를 열었다.

농협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순창군이 지난 24일 기본사회 순창본부 출범과 함께 공모사업 선정을 자축하는 행사를 열었다.

먼저 29일 부안군에서는 전북의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1MW급 PEM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대회는 체육행사와 함께 ‘전주 하계를 립픽 유치 기원 도민가요제’를 겸해, 도민의 화합과 스포츠 정신을 북돋을 예정이다.

엑스포가 개막한다. 이번 엑스포는 ‘발효가 미래다’를 주제로 열리며, 전북의 대표 식품 산업을 국내외에 알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계 되어, 글로벌 첨단소재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중앙회장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18개월간 출근 40일·급여 5억원 논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상임(상근) 임원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취임 1년 6개월(560일) 동안 실제 출근한 날이 40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 “농민신문사, 상근임원 근태 관리 개선을”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4년 3월 21일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출근은 월 평균 2회 수준에 그쳤으며, 주로 결재 문서 처리나 현안 보고만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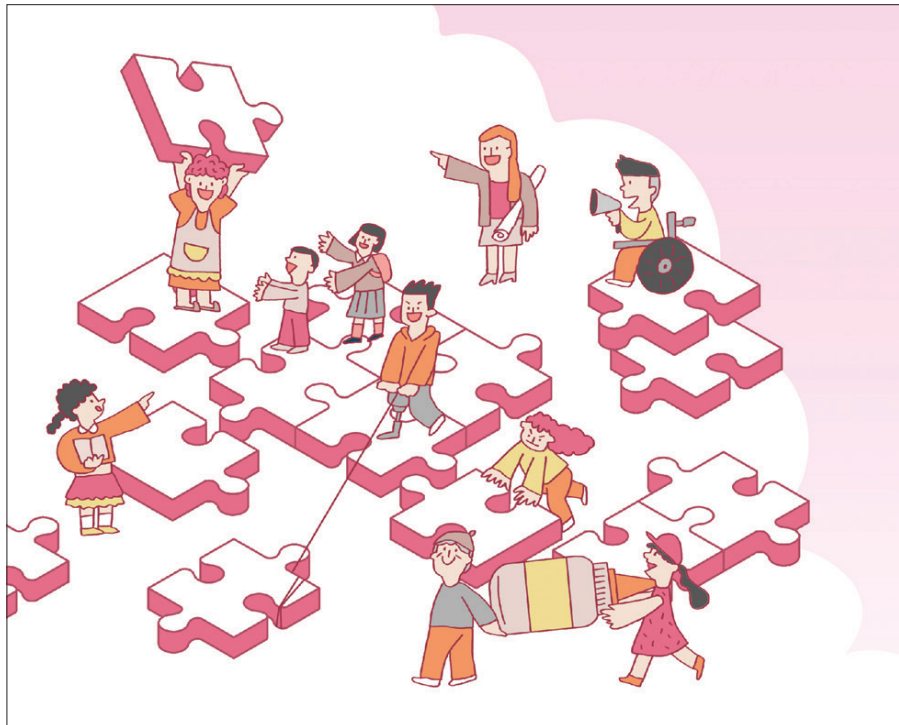
과했다.

않으면서 급여를 받은 것은 명백한 편법”이라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 유보통합추진지원특위, 영유아시범학교 찾아 의견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희)는 지난 24일 유보통합 영유아 시범학교인 전주 테마솔어린이집과 익산 이리성심유치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먼저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테마솔어린이집을 찾아 운영 실태를 확인한 뒤, 익산 이리성심유치원으로 이동해 유치원 중심의 유보통합 적용 사례를 살펴봤다.



시민이 주인!

더 듣고 더 뛰는 실천의회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